

기독교사회복지EXPO 2016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비전선언문

1. 서언

한국에 복음과 신앙의 자유가 없던 시기에 디아코니아는 의료와 교육을 통해 복음을 수용하는 길을 열었다. 그 이후 한국교회는 복음전도와 디아코니아의 양 날개를 통해 일제강점기, 6.25동란, 그리고 경제개발 이후 빈부 격차의 양극화로 민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1세기에 들어와 한국교회는 급변하는 사회적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디아코니아 사역을 보다 전문화하고 조직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연합하게 되었다. 2002년에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기사협)가 창립되었고 기사협은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005’를 개최하여 개 교회 차원에 머물던 디아코니아를 전국적으로 연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7년에 출범한 ‘한국교회봉사단’은 2009년에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와 2010년에 ‘한국교회희망연대’와 통합함으로써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디아코니아 기구로 성장하였고, 다음과 같은 공헌을 남겼다.

(1) 기독교사회복지사업을 조직화하고 학문화하는데 기여하였다.

『한국기독교사회복지총람』(2007)을 발행하였고, 노숙인 실태조사(2009, 2012)를 실시하였다. 한국교회 디아코니아의 연대와 활성화를 돕기 위한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아카데미(2014)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매 5년마다 “기독교사회복지 EXPO”(2005, 2010)를 실시하였다.

(2) 국내외 긴급구호사업에 기여하였다.

서해안 원유 유출사건 때 17만 명의 기독교인 자원봉사자를 조직하였고(2007), 북한에 식량지원(2008), 미얀마 사이클론 재해와 중국스촨성 지진 긴급구호(2008), 필리핀 수해, 인도네시아 지진 긴급구호(2009), 아이티 지진구호(2010), 일본지진 쓰나미 긴급구호(2011), 시리아 난민구호(2013), 필리핀 태풍 피해학교 복구, 팔레스타인·가자·요르단 구호(2014), 네팔지진 긴급구호(2015), 에콰도르 지진구호(2016)에 기여하였다.

(3)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고 해소하였다.

용산재개발참사 중재와 화해를 조정(2009)하였고, 위안부할머니들의 숙소를 마련하였으며(2010), 세월호 피해가족 위로사업을 실시하였다(2014).

한국교회봉사단은 2016년 디아코니아 코리아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디아코니아 비전선언문’을 발표하여 향후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디아코니아의 방향을 밝히고자 한다.

2. 시대의 징표

20세기의 인류는 식민주의, 냉전, 인종갈등으로 전쟁과 학살을 경험했다. 비록 물질문명의 풍요를 이루었지만

기독교사회복지EXPO 2016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비전선언문

지구의 한편에서는 빈곤, 기아, 착취로 비인간화 현상이 나타났다. 인간의 탐욕에 근거한 환경 파괴는 극심한 자연재해와 수많은 생명의 멸종을 가져왔다. 21세기는 인류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하기 보다는 지난 세기 보다 더 심각하게 약자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책임감을 느낀다.

(1)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소수를 위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인간사회를 무한경쟁으로 몰아넣고 있다. 더 나아가 물질 지상주의는 부의 창출과 축적을 인간 사회의 최고의 규범이며 인간 문제의 해결책으로 호도하여 인간의 정신적 가치관과 윤리마저 왜곡시켰다. 국내외적으로 빈부격차는 더 심화되었고, 전통적으로 국민과 시민을 보호해왔던 국가, 지역, 가정 공동체의 기능이 붕괴되면서 행복과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의 질은 더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이주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2) 이 시대는 한편으로 세속적 무신론의 급물살이 흐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호전적인 종교적 광신주의가 급상승하고 있다. 세속화는 종교적 미신화를 벗어나게 하였으나 생명의 신성함을 무시하고 인간관계를 상품화하고 있다. 종교적 근본주의는 종교적 비전과 정체성을 이용하여 그들의 패권적 권력에 복종하지 않거나 그 비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지배하고, 통제하며,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양극단의 종교 문화는 취약한 소수자들과 주변화 된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제공하지 못하고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3) 국가와 공동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통제 없이 폭력과 전쟁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4) 최근 전쟁과 폭력, 가뭄과 기근, 가난과 굶주림을 피해서 도망친 수백만 명의 난민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심해지고 있다. 더구나 경제적 불안과 협소한 민족주의 이념으로 “외국인 혐오증”을 합리화하고 있다.

(5) 인종적·종교적 소수자들, 사회적 카스트제도의 희생자들에 대한 차별, 여성과 아이들, 장애인들과 노년층을 향한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

(6)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생태위기, 자연고갈, 창조질서의 생명사슬이 파괴되고 있다. 환경 파괴로 인한 자연재해의 피해는 저개발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가중되고 있다.

(7) 한국 사회는 청년실업의 증가와 저출산, 노인 인구의 급증, 그리고 가정 해체와 청소년문제의 증대로 국가의 복지사각 지대가 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징조들은 21세기에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 사역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더 시급하고 중요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기독교사회복지EXPO 2016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비전선언문

3. 디아코니아의 성경적·신학적 방향

구약성경에서 아바드(אָבַד)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린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섬긴다”, “봉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인의 예배와 봉사는 분리될 수가 없다.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실천적 응답이다. 구약성경은 성도가 섬겨야 할 이웃은 빈자, 고아, 과부, 나그네라고 구체화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고아를 도우시는 자(시10:14), 가난한 자를 건지시는 자(시35:10),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는 분(신10:18, 시146:9)이다.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섬기라고 명령하시는 분이다(사1:17, 신24:17-21). 하나님의 뜻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약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증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해야 한다(사61:1-2).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섬기기 위해” 오셨고(막10:45), “섬기는 자”로 사셨다(눅 22:27). 예수님은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마찬가지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다(마22:39). 영생의 길을 묻는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가서 너도 이와같이 하라”고 하셨다(눅10:37).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청년에게는 물질을 팔아 가난한 이웃을 돕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막 10:21).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신앙공동체의 정체성은 섬김에 있음을 보여주셨다(요13:14). 예수님의 치유, 죄인들과의 식탁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본질을 미리 앞당겨 보여주신 것이다. 디아코니아는 제자도이며 최후 심판의 기준과 관련된다(마25:31-46).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심으로써 제자직이 십자가 그늘 아래서 표현되기를 원하신다(마16:24).

사도 바울은 디아코니아를 ‘율법의 완성’으로 이해했다(롬13:8). 그는 디아코니아로 구원을 이룰 수 없으나 디아코니아가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을 인정하였다(고전3:13, 고후5:10). 디아코니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값비싼 것임을 증거하는 섬김의 선교이다.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은 사랑의 실천 여부에서 결정된다(약2:17).

구약시대와 초대교회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디아코니아’와 분리될 수 없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약1:27).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디아코니아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며 복음의 열매이며, 값비싼 은혜의 중요성을 회복시키며, 교회일치와 교회개혁의 핵심 요소인 것을 재확인한다.

(1)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다. 세례를 통해 부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는 디아코니아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 디아코니

기독교사회복지EXPO 2016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비전선언문

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또한 디아코니아는 복음을 통하여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앞당겨 보여준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통치와 복종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배타적이거나 내향적인 신앙공동체로 머물러서는 안되며 복음증거와 사랑의 섬김으로 자기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야 한다.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 일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의 사명이다. 따라서 기독교인 각자는 디아코니아 전문기구에 기부한 것으로만 섬김과 나눔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2) 디아코니아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얻은 칭의의 열매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마3:10). 열매 없는 나무가 무익한 것처럼 디아코니아 사명을 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든다. 디아코니아는 값비싼 제자직(costly discipleship)이며, 이웃사랑이 없는 값싼 은혜나 희생 없는 번영신학과 배치된다.

(3) 디아코니아는 ‘예배의 요소’이며 또 ‘예배 이후의 예배’이다. 예배 안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하며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약1:27). 디아코니아를 배제한 예배는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았다(미6:8). 종교개혁자들에게 디아코니아 직제는 예배와 예배 이후의 경건에 필수적인 요소였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디아코니아를 단순히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불충성이다. 디아코니아는 진실성과 경건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4) 디아코니아는 주변화 된 곳에서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길이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를 시작하였다. 그의 선교는 작은 자들과 잃은 자들에게 우선권을 두셨다. 그러나 우리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요1:46)하는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께서는 주변부 사람들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선교의 중심지는 주변부이다. 따라서 디아코니아는 제공자의 관점이 아니라 주변부 공동체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 디아코니아는 상처에 붕대를 싸매는 것으로 그치는 온정주의가 되어서는 안된다. 디아코니아는 상처와 고통의 근본 원인을 고치는 데까지 함께 나아가야 한다.

(5)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일치를 회복시키며 교회개혁의 핵심요소이다. 디아코니아는 교회를 일치시키는 요인이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의 친교를 회복하기 위해 이방인 교회의 연보를 모아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였다. “이방인들이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롬15:27). 16세기 종교개혁이 성경, 은혜, 믿음으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였다면, 21세기 종교개혁은 디아코니아의 제자도를 회복하는 것으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기독교사회복지EXPO 2016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비전선언문

4. 도전과 과제

2015년 국제연합(UN)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발표하였다. 이 목표는 총 17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빈곤과 환경에 대한 기본적 틀 안에서 세계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¹⁾ 국제연합의 이러한 제안은 현재 세계연대의 틀 안에서, 지구적 범위의 환경 안에서 연대를 촉구하며, 한국교회에도 동일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과 과제 앞에 서서 신앙 양심과 세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한국교회 디아코니아에 대해 아래와 같은 비전을 제시한다.

(1)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존귀하며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약자에게 정의를 베풀고, 공동체 안에 정의에 기초한 평등을 구현하고, 모든 생명이 존엄성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들을 복지의 대상으로 묶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는 결손모델은 올바른 복지가 될 수 없다. 이 모델은 주체와 대상을 분리하여 약자를 소외시키게 한다. 디아코니아는 제공자와 수혜자가 함께 동반자로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도록 해야 한다.

(2)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는 공동체의 공익(common good)을 위한 봉사가 되어야 한다.

디아코니아는 세상을 타자로 놓고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교회는 자기 확장을 위해 디아코니아 활동을 하려는 유혹을 극복하고, 이기적 동기를 내려놓고 신앙적 가치를 세상 속으로 확장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을 믿고 사회적 공동체와 지구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신을 이해하며 공동체의 공익(Common Good)을 위한 봉사를 감당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정부와 시민사회, 더 나아가서 지구적 차원에서 디아코니아 연대의 틀을 넓혀가야 한다. 모든 교회와 신앙공동체는 디아코니아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여 의식을 공유하여야 한다.

(3) 한국교회는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의 기반은 지역교회이다. 지역사회에는 지방정부, 지방행정기관, 다양한 복지기관, 비영리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등 교회의 참여를 기다리는 다양한 영역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다. 이곳에서 차상위 계층을 향한 보살핌, 긴급한 재원지원과 봉사활동은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디아코니아 영역이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의 붕괴이다. 교회는 가정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무너지는 가정을 돌봄으로 지역사회를 섬겨야 한다.

한국교회는 자원봉사의 가장 큰 자산이다. 헌신된 인력과 조직된 교회는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이 된다. 기독교인들은 자원봉사를 통하여 신앙의 눈으로 이 사회 구조를 보는 기회를 얻게 된다.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는

1) (1) 빈곤종식 (2) 기아종식 (3) 건강과 웰빙증진 (4) 양질의 교육 (5) 양성평등 (6) 안전한 식수와 위생 (7) 지속가능한 클린 에너지 보장 (8)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9) 포용적인 산업진흥, 혁신, 인프라구축 (10) 국가내, 국가간 불평등 완화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확립 (13)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조치실행 (14) 해양자원 보존 (15) 육지 생태계 보호 (16) 평화, 정의, 책임적인 제도 (17) 목표이행을 위한 파트너십

기독교사회복지EXPO 2016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비전선언문

전문가들의 사역에 머무르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시민사회에 참여하는 통로가 되는 동시에 이 사회가 교회로 한 걸음 다가오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4)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는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현재 남과 북은 극한 대립 가운데 있지만, 민족의 통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이다. 독일의 경험을 통해 볼 때 통일은 정치적 통합으로 완결되지 않으며, 사회적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북한은 절대적 빈곤 가운데 있으며 사회적 질서가 무너진 상태이다. 이 사회가 회복되고 복구되어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는 사회가 되려면 남한의 절대적 지원과 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일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는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 도움만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영적인 삶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할 수 없는 사회적 통합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바람직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며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어내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5) 한국교회는 세계화 시대에 맞는 디아코니아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전한 특수한 경험을 가졌다.

또한 국제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요청받고 있으며 그 위상에 맞게 저개발국가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국내의 복지를 넘어 세계 인류의 복지에 기여해야 하는 안목과 실천이 요청된다.

특히 우리는 한국을 찾아온 이주 외국인들에 대해 책임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계화의 현실을 보며, 소외와 배타주의 자세를 버리고 통합하고 공존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과거에 세계교회 원조의 가장 큰 수혜자였다. 그리고 세계 교회와의 국제교류와 선교활동을 통해 국제화에 경험적으로 앞서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에4:14). 한국교회는 세계화 시대에 디아코니아의 지평을 크게 넓혀야 하는 책임이 있다.

(6) 한국교회 디아코니아는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원리에 기초한 신자유주의 경제하에서 무한경쟁은 전통적인 국가, 지역, 가정 공동체 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 공동체를 위협으로 몰고 가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 땅에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따라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디아코니아를 추구해야 한다.

생명을 살리는 디아코니아는 절대빈곤과 싸워야 한다. 국제연합(UN)은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종식시킨다는 밀레니엄 목표(Millennium Goal)를 가지고 세계와 함께 일했다. 그 결과 절대빈곤은 절반으로 줄었으며 공동의 노력은 절대 빈곤을 추방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왔다.

한국교회는 다양한 사회 기관들과 협력하여 우리 사회의 극단적 양극화와 상대적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

기독교사회복지EXPO 2016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비전선언문

을 주어야 한다.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되고 밀려나는 다양한 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경쟁과 경제적 효율의 가치만으로 자라는 청소년들, 높은 청년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이들, 낮은 취업률과 불안전고용에 처해있는 많은 여성들, 가난과 소외 속에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생명의 바른 가치관이 전달되어야 하며, 절대 빈곤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5. 제안

우리는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 사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과제를 공동으로 인식하며 실천 과제로서 힘쓸 것을 제안한다.

- (1) 디아코니아는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와 존경과 인정을 회복하는 대사회적 선교임을 확신한다.
- (2) 교회는 개 교회 중심적이고 교단 중심적인 사회봉사를 넘어서 보다 전문적인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봉사의 일치를 추구하여야 한다.
- (3) 교회는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로 궁극적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약자에게 물질을 매개로 신앙을 강요하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에 위배된다.
- (4) 교회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도움이 어떤 것인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조사해야 하며 효과적인 지속가능한 섬김을 구현할 책임이 있다.
- (5) 정부의 사회복지망에서 소외된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과 더 나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교회는 우선적 사랑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
- (6) 디아코니아는 민족, 언어, 이념, 문화, 장소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동등한 인격체로 위기의 상황에서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기아, 기근, 지진 등과 같은 재해를 당한 곳에서의 구호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7) 같은 민족인 북한과 아프리카와 같은 장기적인 기근 지역에서 기아에 죽어가거나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선적으로 힘써야 한다.
- (8) 인도주의적 구호에 있어서 정부와 다양한 구호전문 비정부기구(NGO)들과 협력해야 한다.
- (9) 교회는 디아코니아 신학을 받아들이고 발전시켜야 하며, 신학교육과정에도 디아코니아 과정을 포함시켜야 한다.